

자영업자 지원 정책 개발 행정력 집중

군산시, 구도심 상권 대상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공모 신청 준비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 성장 및 혁신을 위한 대책 발표에 군산시의 발 빠른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지역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자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전북도 협업사업 등을 준비하는 등 관내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군산시는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 발표 이전부터 구도심 상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상권 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 커뮤니

티, 청년창업, 힐링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군산시는 전북도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이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

는 사업자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가입 장려금 12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가입 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한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북도와 협의 협업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준비 중으로,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0.8% 중 0.3%를 지원하여 업체당 연 14만 4천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예산을 확보해 지역 내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세부 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

이 밖에도 군산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스마트 로지스틱센터 건립사업'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시행 중에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소상공인들의 창업부터 운영 및 폐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군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등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군산 실물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적인 주체"라며 "어려운 지역상황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개최

군산시, 미취업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군산시는 지난 4일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나섰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취업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매년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018년 12월 중 채용공고를 통해 총 200여명의 신청자를 접수받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48명, 시간제 18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94명, 특화형 인바사 6명 총 166명을 선발하였으며, 1년 동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관공서,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서 행정 도우미로 일하게 되며, 전일제는

주5일 40시간, 시간제는 주5일 20시간 근무하고 복지형 일자리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차계도 및 환경 도우미로 주14시간 월 56시간 근무한다.

또한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인바사 파견 사업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대한인바사회 전북 지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발대식 및 자체교육을 통해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직무요령, 사업규정 안내와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와 예방법 등 기본 소양교육 등을 수료한 후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재활과 자립을 통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작년 익산 농산물 수출액 220만 달러

익산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익산시 농산물 수출액은 22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 240만 달러 이후 최대 실적이다.

홍삼제품(미국), 양파(태국), 수박(일본)이 지난해 첫 수출을 시작했다. 또 주요 수출 품목인 멜론(일본, 홍콩 등), 목이버섯(일본), 파프리카(일본) 등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배(대

만, 베트남, 캐나다 등)의 경우 전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했다.

지속적인 수출을 통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미국의 홍삼 수요 증가, 동남아 지역의 한류 열풍 확대 등을 고려한 수출 품목과 세계 시장 확대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2019년 농산물의 수출 증가를 위해 수출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수출농산물의 검역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업인 교육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9년에도 농산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 품목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역할을 집중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알리고,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군산시는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2019년도 후계농업경영인'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1968.1.1.~2001.12.31.)인 자로 영농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농지구입, 영농·축산시설,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예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상공회의소는 새해를 맞아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군산상의, 화합과 협력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신년인사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지난 4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김관영 국회의원, 광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 이승우 군장대학교 총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덕담을 나누고 새해를 맞이하여 군산발전을

연원하는 의지를 모았다.

김동수 회장은 "군산조선소와 한국 GM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군산 이전, 군산사랑상품권 유통 성공, 동백대교 개통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업, 노동자, 자치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화합, 상생, 협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상공회의소

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자립도시 기틀을 만들어 경제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보였다"며 "올해 새만금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군산조선소 블록 불량 확보, GM공장 가동 노력,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군산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익산시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전개를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익산지역에 중인 무주택 기초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최장 6년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기초수급자(생

계·의료급여)로 장기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2개소와 국민임대주택 12개소로 총 40세대다.

신청은 입주대상자가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정 주택과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익산 특전사동지회,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성금 기탁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익산지회)가 지난 4일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성금 300만원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이 단체는 성금과 함께 회원들이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함께 기탁했다.

이들이 기탁한 성금과 헌혈증은 읍면동과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발굴한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 가정에 지원

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익산지회는 회원 25명으로 지난해 개최된 전국체전에 앞서 철인 3종 경기장 일대 수중정화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 각종 재난 사고 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